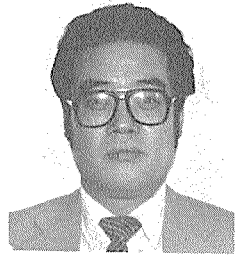


'89년에 달라진 일들



柳京熙 / 韓國데이터통신(株) 研究委員

1. 머리말

매년 해를 넘길때마다 내년을 기하던 버릇이 그래도 이해에는 조그마한 성취감이라도 느끼면서 보내고 싶다. 기껏 연간 매출고가 얼마나 된다던가 수출을 얼마나 했다던가 하면서 성취감을 만족하는 그러한 정보산업에 관하여서는 필자 스스로가 별로 관심을 두지않고 오히려 정보산업 수요개발 및 촉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주변환경의 정비에 노력한 셈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금년에 필자가 직간접으로 관련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생각나는대로 적어보기로 하겠다.

2. 불붙기 시작한 PC통신 산업

흔히들 PC산업에 3가지 봄이 있다고 한다. 첫째봄이 바로 전자게임이다. 이것은 공부해야할 학생이 게임에 너무 몰두한다는 부작용을 남기면서도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새로운 게임이 자꾸 만들어져서 보급일로에 있어 정보산업의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봄은 좀체로 수그러질것 같지가 않다. 두번째 봄이 바로 워드프로세서 봄이다. 사무자동화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공문서의 작성이나, 전표의 작성이나, 심지어는 원고쓰기마저 PC로서 하는 연구

가 부쩍 늘어났듯 하다. 이것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세번째 봄이 바로 PC통신이다. 이것은 데이콤의 Hmail이 모체가 되어서 PC통신의 실용화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PC와 모뎀의 보급과 PC통신의 가능성, 즉 글쓰기와 온라인으로 글 보내기, 소식을 주고 받기, 전자게시판으로 널리 알리기, 전자회의로서 거리에 구애받음이 없이 회의하기,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교환하기, 그리고 채팅, 정보찾기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새로운 봄의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곧 이어서 만들어진 엠팔BBS, Ketel의 Kmail, 그밖의 수많은 사설 BBS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데이콤이 기능을 보강한 PC-Serve, 천리안 2의 통신기능 등이 봄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상용으로서 출발한 코리아네트(주)의 InfoServe도 특별한 한 예가 될 것이다. 지방에서도 동호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94개의 통신기능을 갖춘 PC통신국이 생겨났다고 한다. 매스컴의 피드백기능이 없다는 점, 개인통신(전화)의 제한성을 모두 보완하여 주면 시간과 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

는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PC통신국의 활용가능성은 무궁무지하다고나 할까? 미국에는 이런 것이 7만여개처나 된다고 하며 일본에도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수천개처는 된다고 할만큼 새로운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수요창출이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3. 환경의 미비

고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환경미비가 PC통신산업의 환경미비와 흡사해서 같은 범주에서 고려할만하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서는 아직도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촉진정책이 없는 형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사업인데 이것이 아직도 진척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 글자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가 태무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표준에서도 OSI의 표준화, 통신프로토콜의 표준화가 다소 진척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글에 관해서는 도대체 누가 해야 할 것인지조차 애매한 실정이다.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유기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